

# “未来를 위한 礎石을 마련할 때”

— 日本建築士会連合会에서의 會晤를 中心으로 —

다음은 일본방문 중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에서의 공식회담 내용과 그밖에 시찰했던 내용 등 대표단일행의 공식일정을 소개한 것이다.

俞 景 哲 / 本協會理事 · 建築研究委員會 委員長

## 代表團 訪日 일정

- 2·19일 / • 김포공항 출발
- 2·20일 / • 日本建築士会連合会 방문
  - 日本側과 공식회담 (韓國側 6명 日本側 17명)
  - 「韓日建築技術協力促進을 위한 合意覚書」 제의
  - 리셉션 · 간담회
- 2·21일 / • 東芝빌딩, 東京가스본사사옥 시찰
  - (株) 日建設計서 설계 감리한 건물 시찰
- 2·22일 / • (株) 大林組技術研究所 방문
- 2·23일 ~ 24일 / • 연합회서 각종자료 수집
  - 24일 / • 日本建築学会 방문(자료 구입)
  - 東京建築士会 방문 · 東京都庁建築部 방문
- 2·25일 / • 三星堂, 南陽堂서점서 도서구입
  - 浜松市 任員 등과 간담회
  - 大阪市건축사 사무소 방문
- 2·26일 / • 귀 국

## 참석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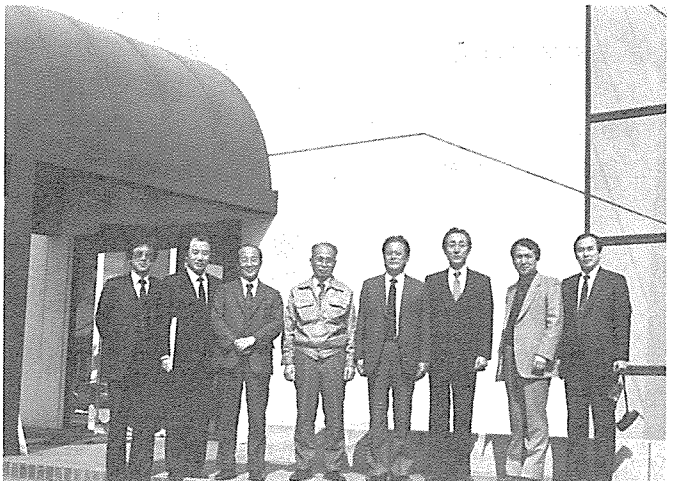
- 韓國側
  - 金枝泰(會長)
  - 俞景哲(本會理事 / 建築委委員長)
  - 吳雄錫(서울支部長)
  - 金一榮(建築研究委員)
  - 趙炳瑄(建築研究委員)
  - 任仁燦(本會 事務處長)
- 日本側
  - 太田和夫(日本建築士連會會長)
  - 澤田光英( " 副會長)
  - 圓堂政嘉(日本建築家會會長)
  - 成田春人(東京建築士會會長)
  - 熊谷兼雄(東京建築士副會長)
  - 越山欽平(東京建築士副會長)
  - 永井賢城(東京建築士副會長)
  - 光藤俊夫(日本建築士連編輯委員)
  - 木下日出男(日本建築士連編輯委員)
  - 和田友一(日本建築士連專務理事)
  - 萩原 静(東京建築士會專務理事)
  - 堀口俊明(關東甲信越지역 青年協議會長)
  - 鈴木善人(關東甲信越지역 青年協議副會長)
  - 本間英明(關東甲信越지역 青年協議相談役)
  - 町田幸一(日本建築士連事務局長)
  - 上口 隆(日本建築士連總務課長)
  - 須藤清光(關東甲信越지역 會事務局長)
- 통역/李利衡(한양대교수)



□ 日本建築学会 방문



□ 일본건축회관내 도서관



□ (株)大林組研에서

韓日建築士団体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건축기술협력과 회원의 교환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로 건축사계 발전과 나아가 양국의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본협회 金枝泰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 6명은 지난 2월19일 오전 10시 김포 국제공항을 출발, 8일간의 訪日 장도에 올랐다.

日本建築士會連合會 太田和夫회장의 초청으로 공식방문하게 된 이번 해외 출장은 그동안 본협회가 동남아 각국과의 교류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국제교류 사업의 본격적인 시발로써, 다변화 내지 다양화 되어가는 건축문화 조류에 대응키 위해 국제협력을 모색하고자 비롯된 것이다.

대표단은 출발에 앞서 국제교류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준비를 했으며 특히 한일간의 건축관계제도와 건축사의 수행업무 등에서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가 해야할 일 등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연구를 하고 양국 단체간의 회합을 준비했다.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 다음날인 2월20일 일본건축사회연합회를 방문, 일본측 관계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 10시부터 연합회 회의실에서 양측대표 23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회합에 들어갔다. 양측의 참석인사에 대한 소개에 이어 金枝泰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金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방문하게 된 경위와 양단체간의 첫 회합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2년 전 방문시 대략 협의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고 또한 양단체간의 깊은 이해와 합의각서 교환으로 점진적인 건축발전에 기여해서 한일 양국의 건축문화 발전에 상호 협력할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또 본협회 회관이 완공되면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관계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 양단체간의 유대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太田和夫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측의 방문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한국의 건축분야는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믿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건축사계는 물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太田회장은 우리 측이 제의한 한일 건축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합의각서 교환은 3월20일경에 열리는 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우리측에 통보해줄 것을 약속하고 환영사를 마쳤다.

양측대표의 인사말씀이 끝나고 이어서 참석인사간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

### 동등한 수준에서의 각분야 교류

---

####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졌으면...

먼저 日本建築家協會 圓堂政嘉회장이 한국건축에 대한 訪韓시의 느낌을 말했다. 圓堂회장은 서울 시내의 도로가 잘되어 있는 반면 교외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고층건물이 많았으나 내부마감 처리가 미흡하고 난방이 잘못되었다는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림픽관련 시설이 훌륭하게 건립되고 있고, 지하철 공사의 기술적 향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밖에 圓堂회장은 선린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동등한 수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건축사들이 자유롭게 양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

### 현재 일본은 설계·감리위원회

---

#### 간에 문제 있고, 제도개선도 필요

일본건축가협회 회장의 발언에 이어 우리측의 俞景哲이사의 발언이 있었다. 발언요지는 먼저 한국건축에 대한 희망과 솔직한 충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한국적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한데 이어 한국과 일본건축의 특색을 비교설명했다.

또 88년 올림픽에 거는 우리의 기대와 선진기술을 익힌 젊은 엘리트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오늘의 회합이 미래를 위한 초석 마련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또 미주기구나 EEC처럼 아시아 제국의 건축계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부회장 겸 일본건축센터 이사장인 澤田光英씨는 일본건축센터의 설립목적과 업무내용을 설명했다.

일본건축센터는 초고층건물에 대한 기술개발과 건설분야를 산업화하기 위한 설계분야와 학회, 민간 기업이 상호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초고층건물에 대한 기술을 심사·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신기술이나 주택공업화에 따른 새로운 조립식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정보 교류를 위해 전시장을 설치 운영하고 자재, 신기술 및 공업화 주택을 전시하고 있는데, 즉 새정보 시대의 교류 수단으로 센터가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澤田이사장은 동남아 각국과의 교류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공동 보조를 희망했으며, 하루미(晴海) 전시장 안내를 자청했다.

熊谷兼雄 동경건축사회부회장은 지난 76년 한국방문시에 들렀던 경주의 인상이 감명 깊다고 말하고 일본의 건축상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25년 전부터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설계자는 물론 소유자와 시공자에게도 표창을 한다고 밝히고 수상작품은 외무성을 통해 세계 각국에 소개한다고 전했다. 그외에 I. F에 가입된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지역 등 각국이 훌륭한 건축물에 대해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한국의 고대문화에 경탄, 88올림픽 때에 건축사 국제교류도...

---

또 熊谷부회장은 서울올림픽 개최시에 건축사의 국제교류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越山欽平 東京建築士會부회장은 대표단 일행이 견학할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서 이해를 도왔다.

먼저 東芝빌딩으로 浜松町驛 근처의 国鉄과 運河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통로가 지하도 1개 뿐인데 이곳을 몇년간 토지 유효화에 따른 개발방법에 의거 건물의 계획을 세운 것이 현재의 동경가스 본사 빌딩과 東芝빌딩

으로 통로는 가까운 浜松驛에서 국철 위를 오버브리지(Over Bridge)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東京都와 建設省은 이같은 개인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향상케 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계자는 충실하게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越山부회장은 또 한국의 건설업에서 T·Q·C(Total Quality Control)가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으며 일본에서는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활발히 이용중에 있다고 말하고 특히 T·Q·C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光藤俊夫 日本建築士会連合會 편집위원도 일행이 돌아 볼 大手 센터 빌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방한 중에 느꼈던 소감을 털어 놓았다.

光藤부회장은 특히 한국의 건축주들은 전통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느꼈으며 건설비용이 일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이상으로 공식적인 회담을 끝내고 장소를 리셉션장소로 옮겨 쌍방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날인 2월21일 일행은 永井賢城 東京建築士会부회장의 안내로 東芝빌딩과 東京가스본사 건물을 시찰했다. 또 주식회사 日建設計에서 설계감리를 한 건물도 돌아보았다.

22일에는 上口 隆 日本建築士連 총무과장 안내로 솔라하우스 겸 건축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株)大林組技術研究所 田中重雄고문과 岡建雄박사, 中川恭次박사, 그리고 寺澤一夫기술연구소장 등이 현장을 안내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이 연구소에서는 ① 솔라하우스 (액티브+패시브형) ② 실내체육관 실험실 ③ 지진에 의한 콘크리트 파괴 시험 ④ 콘크리트 강도시험 ⑤ 건축물의 자재시험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

었다.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에는 연합회에서 각종자료(기증·구입도서 참조)등을 기증받았으며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또 日本建築学会를 방문, 中川昭太郎 사무국장의 안내로 회관과 학회도서관을 돌아보고 건축법규 등 필요한 도서를 구입했다. 또 東京建築士会를 방문, 친선교류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東京建築士会 방문 참조).

25일에는 건축전문서점인 三星堂과 南陽堂서점 등에서 건축관계 도서를 다량 구입했다.

특히 이날 大阪시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안내 받아 작업광경을 돌아보았으며 浜松市建築士 임원진과 만나 상호교류 등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방일 대표단일행은 공식적인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오후 3시50분 일본 大阪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기록·정리/任仁燮 사무처장)

□ 日本建築士会 連合會 기증도서

도 서 명	발 행
建築士法の解説	日本建築士会連合會
建築構造	"
(一級建築士受験のための)	"
実力養成テスト	"
宅地造成等規制法とその解説	"
身体障害者の利用を配慮した	"
建築設計標準	"
木 構 造	"
建 築 コ ス ト	"
日影規制の基礎講座	"
(構造図集)擁壁	"
建築統計年報(1983년판)	東 京 都

□ 東京建築士会 기증도서

도 서 명	발 행
課 題 設 計 例 1~4	
建築設計制図受験直前講習會	東 京 建 築 士 会
「居 住 設」	
建築構造受験準備講習會テキスト	東 京 建 築 士 会
昭和 58 年 通常總會議案書	" (3 권)
建 築 東 京 (No.219 ~ No.230)	東 京 建 築 士 会 (" )

도 서 명	발 행
建 築 法 規 の 解 説	" ( " )
基本 建築関係法令集	(株)霞ヶ関出版社(3 권)
東京建築士会 會員名簿	東 京 建 築 士 会(3 권)
建築工事施工監理指針(上)	(社)營繕協會
" (下)	"
建 築 実 験 法	建 築 実 験 技 術 研 究 会
建 築 基 準 法 令 集	大 成 出 版 社
電氣設備工事共通仕様書	社 団 法 人 營 繕 協 會
機械設備工事 標準図	"
建築工事共通仕様書	"
身体障害者の利用を配慮した	日 本 建 築 士 会 連 合 會
建 築 設 計 標 準	
統 計 資 料 (昭和58年版)	日 本 建 築 士 会 連 合 會(2 권)
建物鑑定評価資料	財団法人 建築物価調査會
設計監理業務記録簿	設計監理 システム 研究所
建築士業務委託契約書	日 本 建 築 士 会 連 合 會(2 冊)
設計・工事監理業務規準	日 本 建 築 士 会 連 合 會
役 員・職 員 名 簿	"
基本 実施 設計完了報告書	
委 託 書	
工事監理終了報告書	
建築基準法関係法令集	東 京 都 建 築 行 政 協 會